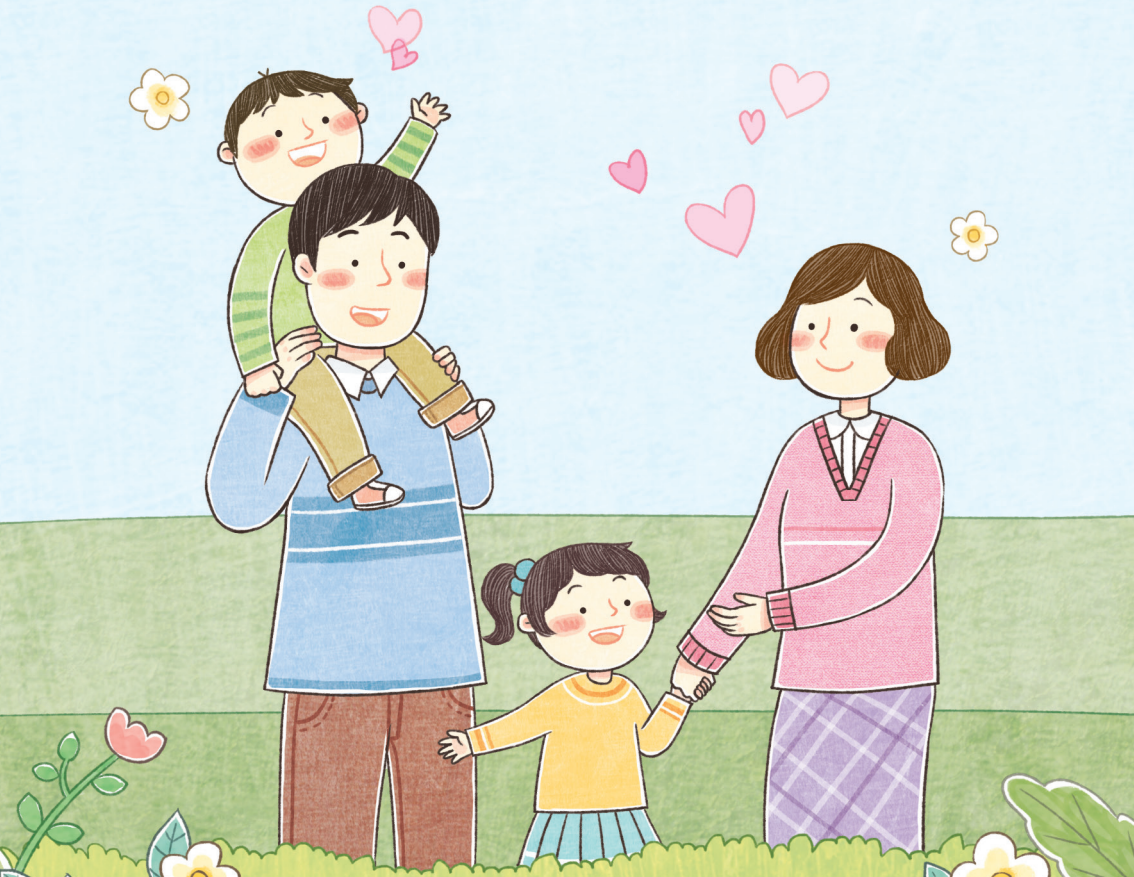
발간등록번호
진흥원-2017-166

부모를 위한 영유아 생활지도



보건복지부
KCPI 한국보육진흥원

부모를 위한
영유아 생활지도

부모를 위한 영유아 생활지도

1 첫 번째 이야기 - 4

2 두 번째 이야기 - 6

3 세 번째 이야기 - 13

4 네 번째 이야기 - 32

첫 번째 이야기

01

오늘도 우리아이와 줄다리기! SOS!

"요즘 들어 우리 아이는 식사시간에
돌아다니며 먹고, 자야하는 시간에는
계속 TV를 보려고 하고,
결국 아침에는 일어나기 힘들어해요."
"늦게까지 TV를 보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시며 속상하셨겠어요."
"고민이 많으셨겠어요.
아이의 그런 행동을 보면 바르게 고쳐주고
싶으신 마음에 화가 나기도 하죠."
"네~ 생활습관을 바르게 고쳐주고 싶지만...
제 말은 잘 듣지 않아요.
매일 화를 내게 되니 더 속상하네요."
"네. 우리 아이의 올바른
생활습관을 잡아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아이의 바람직한
생활습관 형성을 위해
어떻게 해야하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두 번째 이야기

02

아이와 함께 성장하는 부모가 되어야 해요

1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첫째 자녀의 나이가 부모로서의 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아이가 돌이 되어 걸음마를 시작했다면 엄마, 아빠도 한발 한발 균형잡기 위해 그 역할에 고군분투하고 있는 한 살 부모일 것입니다. 자녀가 성장 발달하는 것처럼 부모도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자녀가 어떻게 발달하고 있는지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있다면 연령에 따른 부모의 역할을 잘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이가 보이는 다양한 행동에 대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부모님은 4살 자녀가 친구를 만나면 좋다는 표현을 하려고 얼굴이나 몸을 껴안다가 넘어진다고 합니다. 4살(만2세) 영아는 말을 시작하여 적절하게 표현하는 영아도 있지만 아직은 완벽한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연령입니다. 친구가 아플 수 있으니 자신의 기쁨을 말로 표현하거나 살살 안는 등의 부드러운 신체적 표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자신의 신체를 조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자녀의 발달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자녀에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를 만날 때 부모가 먼저 시범을 보여 따라 해보게 하거나 먼저 안지 않도록 자녀의 곁에 서서 밀착하여 관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자녀에게서 나타나는 행동을 살펴볼 때 그 행동을 언어로 지도할 것인지 환경을 바꾸거나 그 행동을 발생시키는 요인을 제거해야 하는 것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자녀의 감정은 수용해주되 적절한 행동을 가르쳐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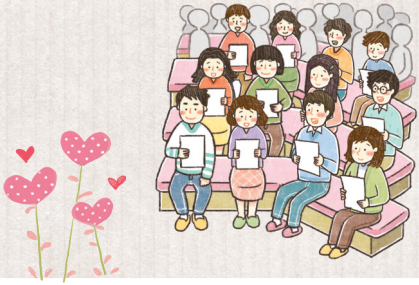
자녀의 여러 행동 중 울기, 떼쓰기가 나타나면 부모로서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이러한 행동에 대해 감정으로 대응할 경우 효과적인 지도는 더욱 어렵습니다. 부모님이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조절하는가가 자녀의 효과적인 생활지도에 있어서 핵심입니다. 상을 차리고 여러 번 밥을 먹으라고 불러도 자녀가 대답하지 않거나 오지 않는 것이 반복된다면 부모님은 참기 어려워 소리를 지르거나 체벌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감정적인 대응은 결과적으로 부모로서 죄책감을 갖게 합니다. 분노, 짜증 등의 불편한 감정을 느낄 경우 일단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기를 해보세요. 자녀가 안전하다면 잠시 그 자리를 벗어나 찬물에 손을 씻는 등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을 마련하세요.

아이들은 자신의 감정을 부모가 수용했다고 느낄 때 더 잘 배울 수 있습니다. 장난감을 사달라고 울면서 떼를 쓸 때에 부모님이 화를 내거나 설명을 해도 그 행동은 반복됩니다. 장소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할 수 있다면 말 없이 이동을 하고 자녀의 울음이나 떼쓰기가 끝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말을 하지 않고 담담하게 있어야 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집 안에서의 행동이라면 그 공간을 잠시 벗어나도 좋습니다. 자녀의 흥분이 가라앉게 되면 감정을 수용해 주세요('~를 사고 싶은데 살 수 없다고 해서 많이 화가 났구나'). 그리고 그렇게 하면 안되는 이유와 적절한 행동(대안)을 가르쳐 주세요('그런데 사고 싶다고 모든 것을 살 수는 없단다. 또 네가 바닥에 누워 울어서 엄마는 많이 놀랐어. 다음에는 화가 나더라도 바닥에 누워 떼 쓰지 말자'). 장난감에 대한 자녀의 열망을 미래에 대한 기대로 바꾸어 볼 수 있는 전략도 도움이 됩니다('0월 0일은 ~ 날이니 네가 갖고 싶은 것을 기억하기 쉽게 여기 종이에 적어두자. 그리고 가장 갖고 싶은 것을 선물로 사 줄게').

아이가 적절하게 행동할 수 있게 되는 것은 하루 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인내심을 갖고 오랜 시간동안 꾸준히 이야기해주는 부모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3

자녀에 대한 모든 가르침은 부모가 먼저 시작해야 해요.



내 아이의 삶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바로 부모에게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부모와 있는 시간보다 길더라도 부모와 있는 그 짧은 시간의 영향력이 강력합니다. 따라서 자녀와 관련된 모든 가르침의 시작은 부모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바쁘고 시간이 없어도 가정에서 해야할 생활습관 지도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시고 자녀가 어떠한 과정에 있는지 자녀를 잘 관찰하며 지도해 주세요. 어린이집의 선생님, 원장님은 전문가이며 내 자녀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는 분들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를 꼭 물어봐 주세요. 때로는 어린이집에서 진행되는 교육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시고 가정에서는 지도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효과가 매우 떨어집니다. 어린이집에서 하는 높은 질의 보육프로그램은 가정과의 연계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이의 효과적인 생활지도를 위해서는 부모인 내가 먼저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4

자녀의 문제가 부모의 문제가 되어서는 안돼요.

자녀의 문제가 곧 부모의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가 밥을 안 먹는 것은 자녀의 문제입니다(아직 스스로 먹지 못하는 신생아나 돌 미만의 영아들은 제외). 자녀가 왜 안 먹으려하는지 곰곰이 생각해보시고 살펴보세요. 움직임이 적으며 예민한 아이는 먹는 것을 가리거나 적게 먹을 수 있습니다. 먹는 것에 대한 자녀의 문제가 부모의 문제가 되면 부모는 이 문제에 매달리게 되고 자녀에게 올바른 지도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가령 밥을 먹게 하기 위해서 TV나 재미있는 스마트폰을 보게 하거나 '밥을 먹고 나면 ~을 하게 해줄게' 등으로 회유하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 아닙니다. 지금 밥을 먹지 않으면 잠시 후에 배가 고프다고 할 것이고 적게 먹어 성장에 영향을 미치면 어떻게 할까 매우 염려가 될 수 있으나 그 마음은 잠시 접어두세요. 자녀의 안전이 보장되는 범위 안에서 자녀의 행동에 대해 결과를 스스로 경험하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 생활지도가 될 수 있습니다.

5

자녀의 문제에 직면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부모는 다른 사람들이 자녀에 대해 말하는 내용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자녀에 대한 어려움이나 문제와 관련된 이야기는 방어하거나 회피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면 5살(만3세)이 되었는데 아직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어린이집 선생님과 원장님은 '언어 발달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제안을 했지만 '친가 쪽이 늦 되서 말문이 늦게 틔였데요'라고 말하고 검사를 받지 않는 것이 이에 해당됩니다. '좋은 부모라면 나의 아이가 어떤 상황인지 모두 알고 있을 것'이라는 믿음에 몰랐다는 죄책감도 가질 수 있고 수치심이 생겨서 이처럼 방어하거나 회피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의 문제를 부모의 문제로 인식하며 '조금 더 아이가 자라면 괜찮을 거야'라고 스스로에게 위로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작은 문제를 피할 경우 나중에는 눈덩이처럼 거대해진 문제에 압도되거나 뒤늦게 후회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발달행동이 또래보다 늦거나 다른 것에 대해 지나치지 마시고 어린이집의 선생님, 원장님과 의논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전해주는 객관적인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직면할 수 있는 용기를 낼 때 내 아이를 위한 특별한 지원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6

문제 상황에 맞는 적절한 방법으로 지도해 주세요.

아이가 크게 울거나 바닥에 누워버리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문제의 상황과 관계없는 방법으로 아이를 훈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예: 양치를 잘 하면 장난감을 사준다거나 장난감 정리를 하면 마트에 갈 수 있다고 하는 등). 이런 경우 지금 그 상황에서는 문제가 해결 된 듯 보이나, 장기적으로 봤을 땐 문제가 해결 되지 않았을 뿐 만 아니라 아이의 떼를 더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조건을 내세워 현혹시키는 훈육방법은 이후 똑같은 상황이 반복될 경우 이전 보다 더 강한 자극을 제시하지 못하면 아이의 문제행동을 더 강화시키는 부작용을 낳게 됩니다. 물질적인 보상으로 아이를 훈육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03

우리 아이가 보내는 다양한 신호!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식습관

사례 1 젖병을 떼지 못하고 계속 젖병에 우유를 먹으려고 해요.

원 인

- 자녀의 월령이 12개월이 지났음에도 젖병 사용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모르거나 젖병을 떼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은 경우
- 시도를 하였으나 아이가 울거나 떼를 써서 다시 젖병을 시도한 경우

지도방법

자녀가 계속 젖병을 사용하면 치아가 썩게 될 것입니다. 또한 씹고 먹어야 하는 음식들을 먹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컵에 익숙해지는 연습은 12개월 전에 충분히 해야 합니다. 빨대와 컵을 사용할 수 있다면 이제 젖병 사용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젖병은 치워주세요. 어떤 부모님은 자녀 앞에서 젖병을 버리거나 가위로 젖병의 꼭지를 자르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는데 꼭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젖병 떼기 실행 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젖병을 다시 주지 않겠다는 부모님의 결심과 이에 따른 행동입니다. 이 결심은 엄마, 아빠, 부모 외에 양육자 모두 동일하게 지켜야 합니다. 어느 한 분이라도 아이가 슬프게 흐느끼거나 심하게 보채어 젖병을 다시 주게 된다면 아이는 이전보다 강하게 젖병에 집착하고 떼는 것은 더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젖병을 뗀 후 3~4일까지도 보채거나 울 수 있지만 건강한 식습관과 충치예방을 생각하며 12개월 이후 젖병은 사용하지 않도록 지도하세요.

식습관

사례 2 편식이 심해요.

원 인

- 기질적으로 까다로운 경우
- 경험해본 음식이 적은 경우
- 먹지 않는 것을 염려하여 선호하는 음식만 주는 경우

지도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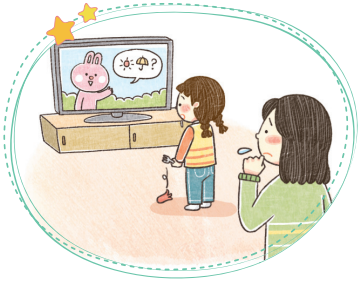
아기의 미각발달은 이미 태내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음이 연구결과 밝혀졌습니다. 특히 단맛에 대한 선호는 태내기부터 나타나는데 양수 속에 설탕물을 주입하면 임신 4개월의 태아가 이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양수를 삼키는 것이 관찰되었다(이영 외, 2015)고 합니다. 이러한 연구를 보면 아기는 이미 단맛을 선호하고 자신의 미각에 맞춘 음식에 길들여지기 쉽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잘 먹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 우유나 모유의 양과 다 먹는 시간, 선호하는 이유식의 종류와 양 등을 꾸준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감각이 예민한 경우 야채처럼 거친 질감의 음식이나 낯선 음식의 향에 쉽게 거부할 수 있습니다. 편식지도를 위해서는 선호하지 않는 음식이 무엇인지 음식에 대한 기호를 파악하고, 다른 조리방법이나 대체할 수 있는 음식이 무엇인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꼭 기억해야 할 점은 잘 먹지 않기 때문에 주식이 아닌 간식을 주거나 또는 선호하는 음식만 주는 것, 외식이나 인스턴트 음식을 자주 주는 것은 좋은 식습관을 방해한다는 점입니다.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야채죽을 먹도록 하려면 등원하기 전 아이가 선호하는 젤리나 쵸코렛 등은 주지 말아야 하는 것이 이에 해당됩니다.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에게 필요한 영양소의 균형을 맞춘 식단을 제공합니다. 가정에서도 그 식단을 참고하여 식습관지도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우리 어른들도 한 두 가지 음식에 대해서는 노력을 해도 좋아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어린 시기에는 여러 음식에 대한 경험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모든 음식을 다 좋아하기는 어렵다는 점도 자녀의 입장에서 이해해 주세요.

식습관

사례 3 TV나 핸드폰을 보면서 밥을 먹거나 돌아다니며 먹어요.

원 인

- 식습관 지도 시 밥을 먹이는 것에만 치중할 경우
- 아이가 공복감을 느끼지 않는 경우



지도방법

대체로 어른들의 식사 시간은 아침, 점심, 저녁 삼시세끼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아기가 태어나서 성장할 때는 3번 먹는 것으로는 부족하지요. 밥과 반찬 외에도 영유아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제공하는 간식을 먹어야 합니다. 밥이나 간식을 먹을 때 걸음마기 아기가 돌아다니면서 먹으려고 하는 것은 발달 과정 중 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이 때는 말로 지도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영아용 의자를 마련해서 먹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배가 고픈 경우에는 아기 스스로 의자에 앉아 음식 주기를 기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간식을 먹고 주식을 먹는 중간 시간의 간격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쩌면 어른들의 시간에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아이가 공복감을 느끼지 않는데 먹이기 위해서 TV나 핸드폰을 사용하는 것은 아닐까요? 영유아가 식사 시간에 자신의 자리에 앉아서 먹기를 바란다면 다음을 꼭 체크하세요

- 아이가 돌아다니지 않고 앉아서 먹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는가?
- 식사 시간 직전 간식(특히 단맛의 간식)을 제공하지는 않는가?
- 아이가 식사 시간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공복감을 느끼는가?

먹는 것에 관심이 없거나 한번 먹는 음식의 양이 적은 영유아의 경우 하루에 어떤 놀이를 하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뛰고 점핑하고 오르고 움직임이 많으며 동적인 에너지를 발산할 때 음식을 먹고자 하는 공복감을 느끼게 되고 스스로 앉아서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면

사례 1 노리개 젖꼭지가 없으면 잠을 못자요.

원 인

- 밤중 수유를 노리개 젖꼭지로 대신한 경우

지도방법

아기가 태어난 후 부모 역할 중 가장 힘들다고 말하는 것은 밤중 수유일 것입니다. 특히 직장을 다니는 부모의 경우 밤중에 일어나서 우유를 먹이는 것은 고된 일입니다. 모유나 우유를 끊고 나서도 밤에는 노리개 젖꼭지를 주지 않으면 심하게 울고 보채어 부모도 잠을 못 자게 되므로 우는 아이의 입에 불편한 마음으로 노리개 젖꼭지를 주겠지요. 노리개 젖꼭지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부모님들은 이것이 손가락 빨기로 가면 어떻게 하나 또는 입이 돌출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갖습니다. 그러나 치과의사들의 조언에 따르면 영구치가 나기 전(만4세)까지는 손가락을 아무리 빨아도 앞니가 튀어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서천석, 2014). 노리개 젖꼭지를 빠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지나치게 걱정하여 이 행동에 대해 혼을 내고 무섭게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자신에게 충만감과 안정감을 주었던 무엇인가가 갑자기 사라진다면 당연히 아이 입장에서는 위안을 삼을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니까요. 활동 시간이 길어지고 낮잠 시간이 짧아지면 어느 순간 노리개 젖꼭지를 찾지 않을 것입니다. 시간을 갖고 기다려 주세요.

수면

사례 2 잠투정이 심해요.

원 인

- 기질이 까다로운 경우
- 수면 시간이 너무 늦거나 불규칙한 경우

지도방법

아이가 잘 자기 위해서는 다음의 내용을 확인하세요.

- 10시 전 규칙적으로 잘 수 있는 환경(잠자기 전 준비, 조명을 끄고 조용한 분위기 등)을 조성하나요?
- 기분 좋게 잠 들 수 있도록 부모님이 책을 읽어주거나 조용한 음악 들려주기 등의 시간을 함께 하나요?

잠자기 전에 지나치게 동적으로 놀이를 하는 것도 잠드는 것을 방해하고 자다가 놀라서 우는 경우를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까다로운 기질의 아기는 신생아일 때도 잘 자지 않고 잠투정이 길어 자는 시간이 짧은 것이 특징입니다. 아이가 성장하면서 다소 이러한 경향은 감소하나 만2세까지도 이러한 기질적인 특징은 잠으로 나타나기 쉽습니다. 따라서 위에서 확인해야 하는 내용들을 더 충실하게 실행해야 합니다. 저녁 식사 후 씻기, 양치하기, 잠자리 준비하기는 매일 해야 하는 일상입니다. 일상에서 늘 부모가 화를 내거나 강압적으로 지도할 경우 아이들은 결과적으로 잠자기를 거부하고 슬프거나 화난 기분으로 잠들 수 있겠지요. 또는 저녁 식사 후 부모님과 하는 놀이시간, 함께 있는 시간을 더 갖고 싶어서 잠투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의 감정은 수용하고 적절한 행동을 가르치는 것'을 적용하세요. "지금 잠자리에 드는 것이 싫구나" (감정수용). "이 그림책을 한번 읽고 자자"(적절한 행동 가르치기)라고 하세요. 이 때 화를 내거나 긴 설명은 불필요합니다. 책을 읽고 나면 불을 끄고 자는 것이지요. 부모님이 피곤하다면 아이의 잠투정을 이해하는 것은 어려워집니다. 잠들기까지 일상의 일들을 부모 중 한 명만이 하고 있는 경우 그 고단함은 아이에게 향해질 수 있습니다. 그 역할을 공유하여 매일 잠자기 전의 행복한 경험이 차곡차곡 쌓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수면

사례 3 밤 늦게 잠들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해요.

원 인

- 부모의 늦은 수면습관에 아이의 수면습관이 맞추어진 경우

지도방법

부모님이 늦게 귀가하는 경우, 부모님이나 양육자 모두 잠자리에 드는 시간이 늦을 경우, 아이의 규칙적인 수면습관을 지도하지 않을 경우 아이는 늦게 잘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영유아가 하루에 자야하는 적정 수면 시간이 있습니다. 5세 미만은 10~11시간, 5~10세는 9~10시간, 10세 이상은 8~9시간입니다(국민건강지식센터 건강칼럼, 2017). 아이가 집에서 안자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낮잠을 재우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부모님도 종종 계십니다. 만약 만3세 유아가 어린이집에서 1시간을 잔다고 해도 집에서 밤 12시에 자고 아침 8시에 일어나야 한다면 적정수면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힘든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늦게 자는 경우 아이의 키 성장과도 관련이 깊으므로 위에서 설명 드린 내용(아이가 잘 자기 위해서 확인해야 할 내용)처럼 저녁식사 이후의 일상을 행복한 잠을 잘 수 있는 환경조성과 일상생활지도로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어린이집에서 낮잠 시간을 줄이는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임을 꼭 기억하세요.

배변

사례 1 대소변을 계속 참다가 실수하는 경우가 많아요.

원 인

- 낯선 환경에서 대소변을 보려고 하지 않는 경우
- 놀이에 집중하는 경우

지도방법

아이들은 자신의 흥미와 관심에 따라 몰두하고 놀이에 집중하는 경우 또는 그 놀이에서 자신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경우에는 화장실을 가야하는 상황도 참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배변 실수를 하기가 쉽지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아이의 입장에서는 화장실 가는 것보다 지금 만들던 블록놀이를 완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므로 이러한 실수에 대해 지나치게 무섭고 완강하게 혼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감정은 수용하고 적절한 행동을 가르쳐 주세요. '00이가 블록을 완성해서 엄마에게 빨리 보여주고 싶었구나' 아이의 입장에서 감정의 수용입니다. 그 다음에는 '화장실을 가야할 것 같은 느낌이 왔을 때는 바로 화장실을 가야해. 그렇지 않으면 화장실 가기 전에 옷에 실수를 하게 되거든. 다음에는 엄마가 충분히 기다려줄 수 있으니까 화장실을 먼저 가도록 하자'라고 적절한 행동을 가르쳐 주세요.

사례 2 낯선 곳에서는 화장실을 가지 않아요.

원 인

- 익숙하지 않은 곳에서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

지도방법

배변훈련이 완료되어 화장실 이용이 가능한데도 집이나 어린이집처럼 자신이 익숙한 환경에서만 배변을 하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른들 중에는 이러한 경우가 없을까요? 여행을 가서 잠을 잘 못 자거나 변비에 걸리는 어른들의 사례들도 있습니다. 아마 낯선 곳에 대한 예민한 반응이겠지요. 아이들도 민감한 성향으로 낯선 장소나 환경에 익숙해지는 것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낯선 것에 대한 불안감이 반드시 부정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면으로는 신중하고 조심스럽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화장실 사용에 있어서 장소를 가리게 될 경우 부모님들은 당혹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외출한 경우에 낯선 화장실에 가지 않으려고 할 때는 화장실 안에 함께 들어가 안심 시켜주고 배변을 시도하는 동안 손을 잡아 주거나 안심해도 된다는 비언어적인 싸인(미소, 고개 끄덕이기 등)을 주시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집에서는 혼자서도 잘하면서 왜 밖에 나오면 못하니'라고 핀잔을 주거나 화난 표정, 짜증이 난 무표정을 보일 경우 아이는 더욱 불안감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낯선 곳과 익숙한 곳을 가리는 아이는 그만큼 부모의 태도에 민감합니다. 부모님의 온정적인 태도가 '낯선 곳에서 시도해보는 것도 괜찮구나'라는 마음을 갖게 할 수 있습니다.

사례 3 대소변을 가리지 못해요.

원 인

- 적절한 배변훈련을 진행하지 않은 경우
- 발달지연 가능성이 있는 경우

지도방법

자녀가 13~15개월 무렵이 되면 배변 훈련을 점차 시작할 수 있는 월령이 됩니다. 이 시기에 가정에서는 자녀를 위한 적절한 배변훈련 지도를 해야 합니다. 아이가 음식이나 음료를 먹고 난 후에는 기저귀를 갈아야 하는 시간을 예측해볼 수 있습니다. 이 때 아이가 좋아할 수 있는 모양의 아기변기를 준비하여 시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꼭 배변훈련을 위해서가 아니라 놀이처럼 기저귀를 차고 옷을 입은 상태에서도 아기변기에 배변을 하는 시늉을 해보며 즐겁게 배변훈련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배변훈련과 관련된 그림책을 보는 것은 배변훈련의 효과를 더 높여 줍니다. 배변훈련의 시작 시기는 아이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지나치게 빨리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아이의 발달 과정을 살펴보며 시작하시고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선생님과 의논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단, 선생님이 알아서 배변훈련 프로그램을 하라고 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배변훈련 프로그램은 어린이집이 아니라 가정에서 먼저 시작해야 효과적이기 때문이지요. 가정에서 먼저 시작하되 시작 시점은 어린이집 선생님, 원장님과 의논하세요.

만3세 이후 잘 때만 기저귀를 차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선 비뇨기과적인 진료를 받아보세요. 이상이 없을 경우 아이가 성장하면 자연스럽게 조절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만4세 즉 6살이 되어도 대변을 가리지 못하거나 만5세(7살)가 되었는데도 항상 기저귀를 차야 하는 경우라면 자녀를 위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고려하고 상담 받으셔야 합니다. 조금 더 빨리 직면할수록 나의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고 바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 도움을 주는 것은 부모님 외에는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청결

사례 1 우리 아이는 목욕하기는 싫어하면서 목욕을 시작하면 나오려고 하지 않아요.

원 인

- 변화를 싫어하는 아이의 기질
- 아이에게 적절한 한계설정을 하지 못하는 부모의 양육태도

지도방법

아이들은(어리면 어릴수록 특히) 자기가 하고 있던 일을 멈추고 다른 일 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싫어합니다.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해서 하고 싶어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해야 하는 일이 있을 경우 그 상황이 일어나기 이전에 아이들이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다음 상황에 대해 예고해 주어야 합니다. "00아~ 5분 후에 목욕할꺼에요"와 같이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을 주세요. 목욕을 시작하기 전에 예고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목욕이 끝날 때 쯤 "00아~ 물장구 2번만 치고 목욕 끝! 하자" 라고 이야기해주세요. 한창 물장난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끝! 밖으로 나가자"라고 말하면 아이가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예고하는 것이 반복되고 습관이 되면 아이가 변화를 좀 더 쉽게 받아드릴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아이가 목욕을 끝마치기 어려워한다면 엄마나 아빠가 지켜보는 상황에서 물장난을 맘껏 할 수 있는 시간(짧은 시간이라도)을 만들어 주세요.

청결

사례 2 양치하는 것을 너무 싫어해요.

원 인

- 입 안에 무엇인가 들어오는 이물감이 싫은 경우
- 청결에 대한 개념이 부족한 경우

지도방법

양치를 하자고 하면 도망가거나 울어버리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아이가 싫어한다고 양치질을 하지 않게 되면 충치가 생겨 이후 치아건강에 매우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가 싫어해도 양치는 꼭 해야 합니다. 손 씻기, 양치하기, 세수하기 등과 같이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본생활습관은 아이의 선택 사항이 아닌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일입니다. 꼭 해야 하는 일이긴 하지만 강압적인 태도로 양치를 시키는 것은 양치질에 대한 거부감을 더 크게 할 수 있어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고 양치를 해야 하는 이유를 차근차근 설명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양치질을 재미있게 할 수 있도록 노래를 부르거나 놀이처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왜 양치를 안 하려고 해! 이 썩으면 치과 가서 주사 맞아야 한다!!"와 같은 강압적인 말보다는 "00이가 양치하기가 싫었구나. 엄마랑 같이 해볼까?" 하며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세요. 엄마, 아빠가 자신의 마음을 알아준다는 사실만으로도 아이들은 한결 편안해진답니다. 기본생활습관에 대해서는 그 행동을 왜 해야 하는지 이유를 쉽게 설명해주고 해당 행동이 습관이 될 때까지 같은 시간에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복적인 훈련은 식사 후 양치질, 식사 전 손씻기와 같이 두 상황을 자연스럽게 연결하게 하여 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게 됩니다.

사례 1 겨울에 샌들을 신고 나가려고 하거나, 비가 오지 않는 날 장화를 신겠다고 해요.

원 인

- 원인과 결과에 대한 개념 부족
- 변화를 싫어하는 기질

지도방법

아이들이 계절에 맞지 않은 옷차림을 한다고 하면 부모 입장에선 매우 난처한 느낌이 들게 됩니다. 이러한 행동은 부모에게 반항을 한다든지 발달에 문제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 아이들은 어른이 선택해주는 것 보다 자신이 선택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엄마나 아빠가 선택해준 옷, 신발을 신기보다 자신이 선택한 옷, 신발을 신고 싶어하죠. 특히 아이가 특별한 애착을 가지고 있는 옷이나 신발일 경우 계절이나 상황에 맞지 않게 입거나 신으려고 하게 됩니다. 이러할 경우 무조건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상황을 설명해주고 계절이나 상황에 맞는 옷이나 신발을 2개 보여주고 이 중에 아이가 원하는 것을 직접 고르라고 해보세요. 부모가 일방적으로 아이의 옷이나 신발을 골라주는 상황은 금물입니다. 선택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되면 아이는 자신이 직접 골랐기 때문에 만족하여 그 상황을 보다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사례 2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꾸 엄마에게 해달라고 해요.

원 인

- 의존적인 아이의 성격, 낮은 자존감
- 보호자의 과잉보호

지도방법

자존감이 낮거나 의존적인 성격의 아이인 경우 또는 아이가 혼자 할 수 있는 일도 부모가 습관적으로 알아서 해주는 경우에 아이는 부모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만2세 전후의 영아는 자기 스스로 하고자 하는 욕구가 자연스럽게 발달하게 됩니다. 물론 이 시기의 영아는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지만, 혼자서 시행착오를 거치며 여러 가지 일을 시도해보는 경험을 통해 자율성이 발달하게 되고 반대의 경우(과잉보호를 하게 되면) 회의감과 수치심을 갖게 됩니다. 만3~5세 유아의 경우 무언가를 주도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게 되는 시기인데 부모는 아이가 주도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반응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치 않을 경우 죄의식을 갖게 되고 수동적인 아이로 자랄 수 있습니다. 아이가 무언가를 스스로 시도하고 해보려고 하면 결과에 관계없이 '과정'과 '의도'를 칭찬해 주세요("00이가 혼자서 신발을 신으려고 하는 구나"). 아이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고, 혼자 할 수 없는 일만 도와주세요. 아이들은 서투르기 때문에 아이가 혼자 할 경우에 어른이 해주는 것보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시간적 여유를 갖고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혼자 했을 경우 진심으로 칭찬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조절

사례 1 식당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소리 지르고 뛰어다녀서 다른 사람들이 쳐다보는 경우가 많아요.

원 인

- 공공예절에 대한 지도 부족
-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능력 부족

지도방법

아이들은 발달특성상 다른 사람의 입장이나 생각을 고려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뛰거나 소리 지르고 싶은 욕구를 스스로 조절하기 힘듭니다. 아이가 공공장소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뛰는 것은 당연한 행동일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곳에서 다른 사람을 방해하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행동은 나이가 든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몸에 배는 것이 아닙니다. 공공장소에서 왜 뛰면 안 되는지, 현재 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려 주어야 합니다. '뛰어다니면 다른 사람과 부딪혀서 다칠 수 있다', '시끄러워서 다른 사람들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아이들은 집중할 수 있는 일이 없을 경우에 뛰거나 소리를 지를 확률이 높아집니다. 식당과 같은 공공장소에 갔을 때 어른들끼리 이야기하느라 아이들을 방치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아이들에게 말로만 "조용히 해라", "뛰지 말아라"하는 것은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어른들이 대화상대가 되어주거나 같이 놀아주어야 합니다(끝말잇기를 하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물론, 부모 입장에서는 귀찮은 일일 수 있지만 아이들에게 말로만 지시하는 것은 아이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아이를 조용히 하게 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켜주고 멍하니 화면을 보게 하는 것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일 중의 하나입니다. 반드시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시간을 통해 사회에 적응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기 조절

사례 2 마트에 가서 장난감을 사달라고 떼를 쓰고 사주지 않으면 바닥에 누워서 울어버려요.

원 인

- 까다로운 기질
- 한계설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양육기술

지도방법

아이들은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하고,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기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떼를 쓰고 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들은 자신의 욕구를 강하게 표현하고 타협이 잘 되지 않습니다. 아이가 울면서 떼쓰는 경우에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무조건 들어주게 되면 아이는 "원하는 것이 있을 땐 울면서 떼쓰면 되는구나~"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원하는 것이 있을 때 말로 표현하고 부모가 그에 맞게 반응해주게 되면 아이는 자신이 울지 않아도 자신의 의견을 엄마, 아빠가 들어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굳이 떼쓰지 않습니다.

만약, 아이가 울면서 떼쓰는 경우 우는 행동을 제지하는 것 보다 왜 우는지 아이의 의도나 생각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 다 쳐다보는데 왜 울어!", "이렇게 울면 혼자 두고 간다!"와 같이 아이가 우는 행동에 집중하여 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아이는 자신의 마음이나 생각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더 크게 울거나 떼를 쓰게 됩니다. 아이가 떼를 쓸 경우 아이의 마음에 집중하여 반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00이가 장난감이 많이 갖고 싶구나"). 자신의 마음을 누군가가 알아줄 경우 아이는 생각보다 쉽게 수그러들게 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좋은지 가르쳐줘야 합니다("엄마 000 갖고 싶어요"라고 말하는 것과 같이). 물론, 울지 않고 말로 한다고 모든 장난감을 다 사줄 순 없습니다. 마트에 가기 전 아이와 약속을 하고 출발해야 합니다. 아무리 어린 아이들도 다 알아듣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마트에 가서 00이가 원하는 걸 모두 살 수는 없어. 장난감은 구경만 하고 과자 1개는 살 수 있어"와 같이 허용되는 범위(한계설정)를 분명히 해주어야 합니다.

특히, 아이가 공공장소에서 떼쓰고 울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부모의 행동은 '사람들 많은 곳에서 소리 지르며 혼내거나' '아이 혼자 두고 가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린 아이라 하더라도 이런 경우 수치심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자기 조절

사례 3 매일 아침마다 어린이집에 가기 싫어 아프다는 핑계를 대요.

원 인

- 변화에 민감한 까다로운 기질
- 수줍음이 많은 성격으로 많은 아이들이 한반에 있는 상황이 어색한 경우
- 적응 프로그램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어린이집을 낯설어 하는 경우
- 피로가 쌓여 쉬고 싶은 경우
- 불안정 애착이 형성되어 부모의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경우
- 어린이집이 재미없는 경우

지도방법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기 싫어한다고 해서 단순하게 어린이집 선생님이 무섭거나 어린이집이 재미없어서라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기 싫어하는 이유와 원인은 무척 다양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건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기 싫어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부모가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어른들이 생각하기에 어린이집에는 놀잇감도 많고 친구들도 있고 선생님들이 재미있게 놀아주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가는 것을 좋아하기만 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어린이집 생활은 사회생활입니다. 어른들이 직장 생활하는 것이 힘든 것처럼 아이들에게도 어린이집은 재미있기도 하지만 힘들기도 한 곳입니다.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기 싫다고 하면 아이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어린이집 가야지. 어린이집 엄청 재미있는데"라며 설득하는 말을 먼저 하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아이에게 이러한 말을 하는 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구나~. 00이 어린이집 가기 싫었구나."와 같이 아이의 마음을 공감해주는 것이 우선입니다. "엄마도 어렸을 때 어린이집 가기 싫었었는데..." 등의 말로 아이를 위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린이집 선생님과 상의하여 어린이집에 가기 싫어하는 이유를 찾아내고, 그 이유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만약 매일 반복되는 일정에 피곤이 누적된 경우라면 며칠 쉬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를 억지로 보내려고 하면 아이는 부모에게 더 매달릴 것입니다.

자기 조절

사례 4 동생이나 친구를 자주 물거나 꼬집어요

원 인

-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기술 부족
- 적절한 훈육 부족

지도방법

아이들은 언어능력이 미숙하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로 표현하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또한, 하나의 행동이 습관이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부모가 한 두 말 한다고 해서 행동이 금방 바뀌지 않습니다. 물거나 꼬집는 행동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되는 행동이 아닙니다. 아이의 이러한 행동이 습관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단호하게 훈육해야 합니다. 단호하게 훈육한다는 것은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는 것과는 다릅니다. 아이의 행동이 어떠한 점에서 잘못되었는지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어야 합니다. 아이들은 도덕성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웃으며 이야기하면 말의 내용과 관계없이 좋은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므로 단호한 표정으로 분명하게 이야기해주면 충분합니다. 이때 아이가 왜 친구를 물었는지 그 이유를 묻고 아이의 마음을 공감해 주어야 합니다. 항상 가장 먼저 할 일이 아이의 마음을 공감해주는 것입니다. 그 이후 물면 안 되는 이유와 무는 것 대신 할 수 있는 말이나 행동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친구가 OO이 장난감을 가져가서 화가 났구나. 그런데 OO이가 친구를 물면 친구가 아파. 물지 않고 '가져가지 마! 내가 먼저 놀고 있었으니 다 놀고 줄께!'라고 말하는 거야"

일부 부모님들은 아이의 행동을 고치기 위해 아이가 한 행동을 똑같이 아이에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친구를 꼬집는 아이를 엄마가 꼬집기/동생을 문 아이를 엄마가 물기). 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아이에게 '내가 잘못을 하니 엄마/아빠가 나를 꼬집는(무는)구나. 누군가 나에게 잘못을 하면 나도 꼬집어야지(물어야지)'라는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하게 하여 잘못된 문제해결 방법을 배우게 합니다.

자기 조절

사례 5 계속 TV를 보거나 스마트폰만 하려고 해요.

원 인

- 부모의 방임적 양육

지도방법

아이가 TV나 스마트폰을 보게 된 처음 계기는 부모가 틀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TV나 스마트폰을 보고 있으면 부모는 조금 자유로워집니다. 밀린 집안일도 할 수 있고 식사도 편하게 할 수게 됩니다. 부모가 식사를 편하게 하고 밀린 집안일을 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부모의 시간을 갖기 위해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것은 아이의 발달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스스로 TV나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을 조절할 수 없습니다. 보면 볼수록 계속 보고 싶어합니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 TV나 스마트폰을 봐야 하는 상황이라면 얼마동안 볼 수 있는지 미리 시간을 계획하고 아이에게 알려줍니다. "지금 시계 긴바늘이 2자에 가있네. 긴바늘이 3자에 가면 TV를 끄기로 했지? 3자에 갈 때까지만 보자" 보는 시간이 끝나갈 때쯤 조금 있으면 그만 보는 시간임을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갑자기 꺼버리면 그 상황을 아이들이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물론, 미리 예고를 해도 계속 보겠다고 떼쓸 수 있습니다. "00이 더 보고 싶었구나. 그런데 엄마랑 약속한 시간이 되어서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자. 00이가 약속 잘 지키면 다음에 또 볼 수 있어" 라고 말하며 처음 한 약속을 일관성 있게 지키려는 부모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이가 TV나 스마트폰을 보고 싶어 할 땐 아이와 함께 놀아주세요. TV나 스마트폰을 보는 것보다 사람과 노는 것이 더 재미있다는 것을 아이가 경험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모가 아이와 함께 놀 여력이 없을 때 TV나 스마트폰을 틀어주게 된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아이가 떼를 쓴다고 해서 못이기는 척 계속 보게 하면 아이는 TV나 스마트폰 보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TV나 스마트폰에 노출되는 것은 전적으로 부모의 책임임을 알고 부모 스스로 자신을 조절해야 아이들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04

알고 싶어요

한국보육진흥원은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발달과
부모의 행복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한국보육진흥원에 대해 알아보아요.

한국보육진흥원에서는 어떤 일을 할까요?

※ 자세한 사항은 https://www.kcpi.or.kr 를 통해 확인하세요.

어린이집 평가

보육서비스에 대한 효과적인 질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여 부모들이 합리적으로 어린이집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어린이집 지원

장애·다문화, 시간제 보육 어린이집, 공공형어린이집 등의 운영지원을 통해 어린이집이 우수한 보육서비스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보육교직원 지원

보육교직원의 자격 검정 및 발급부터 단계별 다양한 교육 제공을 통해 보육교직원이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보육정책 지원 및 홍보

대내외 보육환경 분석 및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정책수립을 지원하고 홍보합니다.

아동관련 기관 위탁·운영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드림스타트 사업지원단을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아이가 가정 외에 처음 만나는 환경이며
하루 중 많은 시간을 생활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또 하나의 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부모와
어린이집은 함께 협력해 나가는 동반자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님은 어린이집 보육파트너로서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어요.

어린이집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에 다양한 방법(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위원, 부모 모니터링단, 이용 만족도 조사 참여, 어린이집 행사 참여 등)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어린이집에서는 보육교직원, 부모, 지역사회 인사가 어린이집 운영에 참여하여 운영의 자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설정과 어린이집 특성에 맞는 보육을 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운영위원회는 분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며, 이를 통해 수렴한 의견 및 결과는 어린이집 전체 이용 부모에게 안내합니다.

※ 가정어린이집은 지역사회 인사를 제외할 수 있음

부모 모니터링단

부모가 직접 모니터링단이 되어 전문가와 함께 어린이집을 방문한 후 급식, 위생, 건강 및 안전관리 등 운영상황에 대해 모니터링합니다. 모니터링 후에는 결과에 따라 어린이집에는 맞춤 컨설팅을 제공하여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 향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모모니터링단 지원은 연초 어린이집이 소속된 지자체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 만족도 조사

어린이집에서는 부모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여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기도 합니다.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한 부모의 평가는 어린이집의 보다 나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중요한 자료로 활동되므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어린이집 행사(부모교육, 부모참여수업, 열린어린이집, 가족행사 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고문헌

국민건강지식센터 건강칼럼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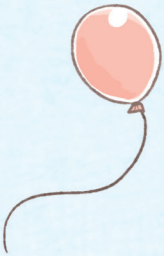
보건복지부(2017). 2017 보육사업안내.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845206&cid=51003&categoryId=51017 에서 인출.

서천석(2014). 우리아이 괜찮아요. 서울 : 예담.
이영, 이미란, 홍희영, 한성희, 민성혜, 박신진, 유영미, 신혜원, 민현숙, 정지나, 문영경(2015). 영아발달. 학지사.

한국보육진흥원(2016). 또 하나의 집 어린이집 생활이야기.

집필

한남대학교 아동복지학과 손승희 교수
배화여자대학교 아동보육과 이윤선 교수
한국보육진흥원 정선교 팀장
한국보육진흥원 성정원 대리



부모를 위한 영유아 생활지도

비매품/무료

03370

9 788998 842246

ISBN 978-89-98842-24-6

한국보육진흥원

부모를 위한 영유아 생활지도 | 발행일 2017년 12월 15일 | 발행인 서문희 | 발행처 한국보육진흥원

T. 02)6901-0100 www.kcpi.or.kr | 편집 하늘디자인 T. 02)446-9590